Invest chosun

LEAGUE TABLE

인베스트조선 2023.1Q Korea Capital Market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더디게 오는 자본시장의 봄…
'눈치보기'만 치열했던 시장 참여자들

1분기 들어 유동성 기근 다소 풀렸지만
SVB 등 국내외 금융 불안에 다시 주춤
기업·자문사 할 것 없이 눈치 싸움 치열
소문에 예민한 시장… 개인도 희비 교차

작년 하반기 이후 자본시장을 옭아맨 유동성 기근은 올해 들어 조금씩 풀리는 듯했으나 국내외 금융 시스템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살얼음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역동성을 찾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반등을 확신하긴 어렵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대형 거래에선 수임 경쟁이 치열했고, 기관투자가들의 지갑이 언제 열릴지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 시장의 심리가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출렁이니 뉴스와 루머 사이에서 울고 웃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과 개인, 사모펀드(PEF) 할 것 없이 비싸게 팔려는 곳과 싸게 사려는 자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눈치를 봐야 할 곳이 점점 늘고 있다. 작년 실적과 올해 주가가 하락한 곳들이 많으니 기관은 물론 똑똑해진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신경써야 한다. 카카오처럼 경영진이 대규모 연봉과 상여를 챙겨간 곳은 날선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주주환원책을 내도 경영진의 이익과 결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예전엔 기업 오너와 이사회의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현대백화점처럼 주주총회를 넘지 못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난다. 명분과 전략에 따라 파급력이 갈리긴 하지만 행동주의펀드는 존재 자체로 성가시다. KT, 포스코 등 주목받는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입이 신경쓰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연일 '지배구조 개선'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차분하다. 기업이나 PEF들은 물밑에서 '열린 행보' 중이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자문사들은 호황기에 확충한 인력을 활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HMM 매각에선 국내외 투자은행(IB)이 총출동해 각축을 벌였는데, 삼성증권에 공이 돌아갔다. 산업은행의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문료를 가격 하한선 아래로 '소신 제안'한 곳들이 많았다. 탈락한 일부 IB는 산업은행에 억울하다며 재고를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EF, 벤처캐피탈(VC) 운용사들의 자금 모집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최악의 기근은 넘겼다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작년부터 펀드 결성에 나섰거나 올해 움직일 곳들은 경쟁 전략을 고심한다. 관(官)에서 나오는 자금의 규모나 성격, 분배 주체가 달라진 점도 변수다. '큰손'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출자 규모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조달 환경은 작년보다 나아졌다. 10%를 넘나들던 금리는 6~7% 수준으로 내려왔고, 증권사들이 대형 거래에서 적극 부담을 떠안기도 한다. 1분기 인수금융 분야에선 은행들의 성적이 좋았다.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은행들을 참여시켜 위험을 나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채 시장은 예년처럼 '연초효과'를 누렸다. 수요예측마다 대규모 투자금이 몰리며 주관사와 투자자 모두 간만에 분주한 한 분기를 보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이에 편승했는데, 온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이어지며 시장의 출렁임이 커졌다. '타이밍'을 놓친 기업들은 다시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증시 문은 조금씩 열리는 분위기다. 오아시스마켓 상장(IPO)처럼 '주관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실패했지만, LB인베스트먼트와 같이 흥행에 성공한 곳도 나타난다. 대어들의 증시 입성은 자신하기 어렵다. 특히 작년에 상장을 철회한 곳들은 시장 흐름에 더 민감하다. 증권사 사이에선 대형 거래보다, 작은 기업 여러 곳을 맡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츠(REITs)의 매력은 전만 못한 분위기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점차 자본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SVB, CS 등 문제가 불거지며 기업도 투자자도 다시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자산들의 몸값 거품이 여전하다는 시각이 많다 보니 당분간은 투자 시장이 호황을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자본시장 주요 이벤트

시기	내용
1월	**4일** 컬리 상장 철회 **15일** 대통령실, UAE서 300억달러 유치 발표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포기 **25일** MBK-UCK,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추진
2월	**7일**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2대주주 등극 발표 **10일** 하이브, SM엔터 공개매수(주당 12만원) 추진 **13일** 오아시스마켓 상장 철회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
3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7일** 윤경림 사장 KT 대표 후보 선정. 27일 윤 후보 사퇴 **10일** (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14일** CS 재무 위기 본격화. 19일 UBS, CS 인수 결정 **22일** HMM 매각주관사에 삼성증권 선정 **27일** 토스뱅크 "LCR 833.5%. 우려할 부분 없다"

1분기는 개인들의 눈치 싸움도 불꽃이 튀었다. 올해 들어서만 오스템임플란트, 한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등의 공개매수가 진행됐는데,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매수가 12만원) 외엔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개매수 가격과 득실을 따져가며 주가를 만들고, 주관사들은 공개매수 '서비스 표준 가격'을 형성해갔다.

하이브가 주당 18만원 이상에 카카오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란 루머에 기대를 건 개인들은 평가손을 봤다. 최근엔 토스뱅크 뱅크런 우려가 퍼지며 예금자들이 노심초사했다.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서는 예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위상호 기자

오스템·SM엔터, 공개매수 돋보인 1분기 M&A 시장…
메디트 매각한 씨티증권 1위

씨티증권, 최대 빅딜 메디트 1건으로 재무자문 1위
오스템·SM엔터 등 공개매수 자문에 대형사들 북적
회계실사 1위 삼정KPMG…자문실적은 전년比 하락
김앤장, 주요 거래 모두 참여하며 1위 독주 지속 중
인수금융 은행 존재감 커져도…단독 대신 공동주선

1분기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등 공개매수 방식 인수합병(M&A) 거래가 분위기를 주도한 가운데 메디트 매각을 자문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재무자문 1위에 올랐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보이고 있지만 일감이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 몇 안 되는 조 단위 거래를 대형사가 나눠가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M&A 재무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씨티글로벌마켓증권	24,119	1	메디트 S	4
2	스탠다드차타드증권	20,000	1	SK쉴더스 B	-
3	NH투자증권	19,073	1	오스템임플란트 B	-
4	삼일PwC	17,365	6	넥스플렉스 B, 현대삼호중공업 B	3
5	크레디트스위스	16,167	3	솔루스바이오텍 S, SK쉴더스 S*	2
6	JP모건	12,437	2	SK 쉴더스 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	6
6	모건스탠리	12,437	2	SK 쉴더스 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	7
8	삼정KPMG	3,509	4	디스트릭트코리아 B, 피드몬트 리튬 S	1

* 공동으로 진행한 거래는 전체 금액을 회사수로 나눠 금액 반영
* S는 매각 자문, B는 인수 자문

씨티증권은 1분기 UCK파트너스코리아의 메디트 매각 자문을 이끌며 실속을 챙겼다.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를 자문하며 2위,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와 UCK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를 도우며 3위에 각각 올랐다.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조단위 거래를 각 1건씩 수임했지만 액수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4위는 MBK파트너스의 넥스플렉스 인수와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인수를 도운 삼일PwC에 돌아갔다. 1분기 중 자문사 대부분이 1건 안팎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가장 많은 거래에 참여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SK쉴더스 외 청호나이스와 솔루스바이오텍 매각을 자문하며 5위를 기록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CS는 UBS가 인수하기로 했는데, 한국 투자은행(IB)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CS와 함께 SK스퀘어의 SK쉴더스 매각을 도운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공동 6위를 기록했다. 양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JP모건은 작년 김영기 투자은행(IB) 부문 총괄대표가 네이버로 떠났다. 올해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서 기업금융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기준 지점장이 한국 대표에 올랐다.

전년 1위였던 삼정KPMG는 IMM인베스트먼트와 LG화학의 지분 투자 등 1000억원 안팎 거래를 수임하며 8위를 기록했다.

올해 최대 거래로 꼽히는 HMM 매각 주관엔 JP모건·모건스탠리·씨티글로벌마켓증권·UBS·뱅크오브아메리카(BofA)·삼성·미래·KB·NH 등 국내외 증권사가 각축전을 벌였는데 삼성증권이 최종 승리했다. 산업은행 관련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CS는 제안서를 내지 않았는데, 유력한 인수후보와 합을 맞출 것이란 예상도 있다.

M&A회계실사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삼정KPMG	46,782	10	오스템임플란트 B, 청호나이스 S	2
2	삼일PwC	43,215	10	SK쉴더스 B, 넥스플렉스 B	1
3	딜로이트안진	51,138	4	메디트 S, SK쉴더스 S	3
4	EY한영	17,540	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 청호나이스 B	4

삼정KPMG는 회계실사에선 10건의 거래에 참여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빅딜 외에도 크고 작은 바이아웃 거래와 지분 투자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EQT파트너스의 SK쉴더스 인수와 MBK파트너스의 넥스플렉스 인수 실사를 담당한 삼일PwC가 2위다. 실사 작업은 1위 삼정KPMG와 동률이지만 금액에서 순위가 갈렸다.

딜로이트안진은 3위다. 삼정KPMG와 함께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 실사를 담당한 것 외에도 메디트와 SK쉴더스의 거래를 도왔다. 1분기 재무자문 실적을 올리지 못한 EY한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매각에서 회계실사를 맡았다.

M&A법률자문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김앤장	80,633	13	메디트 S/B, SK쉴더스 S/B	1
2	광장	46,156	8	오스템임플란트 B, SM엔터테인먼트 S	3
3	세종	29,687	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 SM엔터테인먼트 B*	5
4	태평양	21,150	6	SM엔터테인먼트 B*, 청호나이스 S	4
5	율촌	6,296	5	HDS엔진 B, 엠로 S	2
6	화우	29,378	3	오스템임플란트 S, SM엔터테인먼트 S	6
7	LAB파트너스	4,343	3	타운마이닝캄파니 B, 한국특수가스 등 B	8
8	KL파트너스	1,359	2	씨큐브 S, 넥스플러스 B	7
9	대륙아주	1,450	1	이스타항공 S	9

* 공동으로 진행한 거래는 전체 금액을 회사수로 나눠 금액 반영
* S는 매각 자문, B는 인수 자문

법률자문 1위는 김앤장이다. 메디트와 SK쉴더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 유치는 물론 하이브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보유 SM엔터 지분 인수까지 맡으며 2위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광장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와 SM엔터 매각을 자문하며 2위에 올랐다. 우리금융지주의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투자 등 주목도 높은 거래에 다수 참여했다.

세종은 태평양과 함께 카카오그룹의 SM엔터 인수작업을 자문하며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태평양은 카카오의 SM엔터 2대 주주 등극 때부터 카카오 측을 대리했고, 이후 인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세종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김방현 변호사, 세종은 조중일 변호사가 자문을 주도했다.

율촌은 한화임팩트의 HDS엔진 인수와 엠로의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을 자문하며 5위를 차지했다. 화우는 이 전 총괄의 SM엔터 제3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하이브로의 지분 매각 작업까지 수임하며 6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오스템임플란트와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 등 주요 거래를 도왔다.

7위는 세 건의 바이아웃 거래를 성사시킨 LAB파트너스에 돌아갔다. 오케스트라PE와 SG PE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 외에도 전략적투자자(SI)인 아이에스동서의 투자에 참여했다. 이어 원레이크파트너스의 넥스플러스 인수와 씨큐브 매각을 도운 KL파트너스가 8위, 이스타항공 매각을 자문한 대륙아주가 9위에 올랐다.

M&A 인수금융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국민은행	7,324	2	모멘티브, 일진머티리얼즈	4
2	삼성증권	4,700	2	메디트, 버거킹	7
3	하나은행	4,542	4	모멘티브, 일진머티리얼즈	2
4	우리은행	4,000	2	메디트, 일진머티리얼즈	8
5	산업은행	3,235	3	일진머티리얼즈, 쌍용건설	11
6	키움증권	3,000	1	메디트	14
7	수출입은행	1,957	1	모멘티브	-
8	NH투자증권	1,900	2	노르진, 닐슨홀딩스	5
9	NH농협은행	1,600	1	일진머티리얼즈	20
10	한국투자증권	1,580	2	닐슨홀딩스, 버거킹	3

인수금융 시장에선 증권사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여력이 있는 은행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

KB국민은행은 1분기 총 7324억원의 주선 실적으로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빅딜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금융과 모멘티브 리파이낸싱(차환)을 주선했다. 2위는 메디트 인수금융과 버거킹 리파이낸싱을 주선한 삼성증권이다.

이들 거래를 공동 주선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키움증권이 각각 3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5위권 이내에 들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닐슨홀딩스 인수금융을 공동주선하며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자문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거래를 나눠진 구도다. 조달 환경이 나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단독 주선 수임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낙영·이지훈 기자

인수금융 시장에서 다시 주목 받는 은행들

금리 부담에 부동산PF 유탄맞은 증권사들
상위권 휩쓸던 증권사 빈자리 채운 은행들
일진머티리얼즈 주관사 12곳 중 10곳이 은행
"대규모 거래서 안정적 조달 창구 필요" 분위기도
초대형 인수금융 SK쉴더스 KB證 단독 주관
증권사들 분위기 반전 계기 될지 주목

지난 5년간 인수금융 시장의 주도권은 증권사가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 증권사가 초대형투자은행(IB) 라이선스를 통해 기업 여신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은행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인수금융 시장도 잠식해 왔다.

올해부터 상황이 반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가 고착하며 금융기관이 공격적인 영업을 제한받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달 금리에 관한 부담이 크고 최근 부동산PF 발(發)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증권사는 인수금융 주선 실적이 다소 침체했다. 반면 그나마 조달 사정이 여유롭고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은행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다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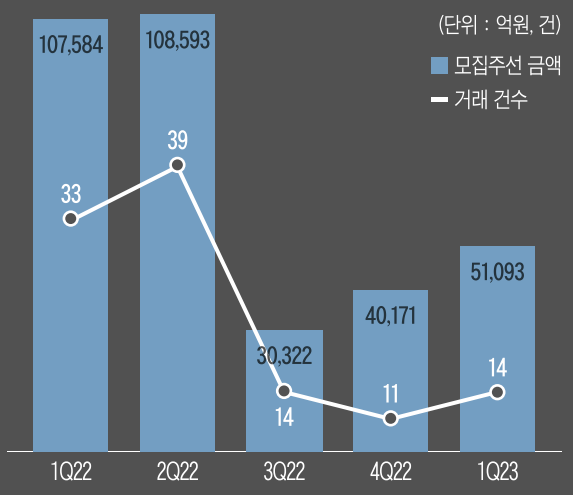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1분기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인수금융 시장 규모는 약 5조1093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주선한 금액은 약 2조770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해(약 11조300억원)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으나,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36.8%) 대비 15%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인수금융 리그테이블 상위권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 등이 위치했는데 5위권에 든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했다. 지난 수년 동안 분기 또는 연간 인수금융 리그테이블에서 증권사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1분기만 보더라도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이 5위권 내 순위를 기록했다.

물론 올해 1분기 M&A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점과 전체 인수금융의 상당 부분이 몇몇 거래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올해 초 가장 큰 규모의 M&A로 꼽히는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금융 주선사 대부분이 은행으로 구성돼 있는 점은 최근 시장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M&A 과정에선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일으켰다. 전체 12곳의 금융기관이 인수금융 주선을 맡았는데 이 중 10곳이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으로 구성했다. 1조970억원 규모의 모멘티브 인수금융 리파

2023년 1분기 M&A 인수금융 주관



이낸싱 거래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수출입은행이 주선사로 참여했고, 9000억원 규모의 메디트 인수금융 주선사엔 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은행들의 약진은 최근 높아진 금리로 인해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진머티리얼즈 거래의 경우 롯데그룹에서 애초 은행들과의 접점을 늘리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국내 증권사 인수금융 담당자는 "롯데그룹은 기존에 은행과 거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계기로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기 위해 시중은행을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금리 부담과 별개로 최근 부동산PF로 촉발한 부동산 부문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증권사들의 부담 요인이다.

정부의 강력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장하지 않거나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증권사·캐피탈·저축은행들의 부동산 여신 규모는

M&A 인수금융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국민은행	7,324	2	모멘티브, 일진머티리얼즈	4
2	삼성증권	4,700	2	메디트, 버거킹	7
3	하나은행	4,542	4	모멘티브, 일진머티리얼즈	2
4	우리은행	4,000	2	메디트, 일진머티리얼즈	8
5	산업은행	3,235	3	일진머티리얼즈, 쌍용건설	11
6	키움증권	3,000	1	메디트	14
7	수출입은행	1,957	1	모멘티브	-
8	NH투자증권	1,900	2	노르진, 닐슨홀딩스	5
9	NH농협은행	1,600	1	일진머티리얼즈	20
10	한국투자증권	1,580	2	닐슨홀딩스, 버거킹	3

최근 수 년 새 급증했다. 국내 26곳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익스포저는 평균 44.2%이다. 실제로 각 증권사별로 늘어난 부동산 관련 여신의 리스크 관리가 제 1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인수금융 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다소 경계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M&A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든게 사실이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들 역시 무리해서 거래를 수임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거래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선보단 공동주선 전략를 세우는 곳이 상당수다.

인수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주목받는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증권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면 판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인수금융 규모만 2조3500억원으로 상반기 최대 규모 인수금융 거래로 꼽히는 SK쉴더스의 주관은 KB증권이 단독으로 맡는다.

이지훈·정낙영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Shinhan
신한금융그룹 presents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정을 위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꿈 많은 아들 수찬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가족의 성장 실화
아이의 꿈과 부모의 꿈까지 지키는 방과 후 돌봄교실
신한 꿈도담터
맞벌이 가정의 공감 실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선한 세상 이야기
[방과 후 돌봄교실 신한 꿈도담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교실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148개소, 46만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은 안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동 실화 감상하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순위권 의미 사라진 1분기 ECM… IPO 명가 KB證·NH證 존재감 줄어

딜 갯수 줄어든 ECM 시장, 퇴색된 순위권 의미
한국證 1위 수성…중소형證도 순위권 들어
롯데케미칼 유증·한회리츠 IPO가 갈랐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한 풀 꺾여 딜(Deal)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주식자본시장(ECM) 순위권의 의미도 퇴색된 모습이다.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 기업공개(IPO) 등 발행규모가 그나마 큰 딜에 참여한 것이 그나마 성패를 갈랐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ECM 공모발행 시장에서 총 2358억원 규모의 딜들을 주관하며 1위에 올랐다. 한화리츠 IPO(1160억원), 제넥신 유상증자(852억원)를 주관한 덕분이다. 전년 동기 9위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한 모습이다.

다만 순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하면서 IPO, 유상증자 관련 딜 갯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 IPO(12조7500억원)를 제외하면 2조9972억원 규모의 공모 발행이 이뤄졌다. 올해 1분기 공모발행 규모는 이보다 줄어든 1조8961억원 수준이다.

특히 유상증자 주관 순위가 그렇다. 1분기 유상증자 딜은 7건에 불과했는데, 공모 규모가 가장 컸던 롯데케미칼 유상증자(1조2155억원)에 주관사로 참여한 7개 증권사(KB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IPO 순위권에선 한화투자증권이 2위를 기록했다. IPO 시장에서 가장 발행 규모가 컸던 딜은 한화리츠였는데, 이를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과 나란히 순위권에 오른 모습이다. 그 뒤로는 엘비인베스트먼트의 상장을 도운 미래에셋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한화투자증권 외에도 ECM 전체 주관 순위엔 그간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중소형증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샌즈랩 IPO(389억원)를 주관한 키움증권, 지아이이노베이션 IPO(320억원)와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를 주관한 삼성증권은 지난해 1분기와 달리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나증권은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주관 참여한 건만으로도 NH투자증권과 함께 전체 주관 5위를 차지했다.

IPO 주관 순위에서 NH투자증권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 주관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순위싸움에서 밀린 바 있다. 올해 1분기엔 상장이 기대됐던 11번가, 오아시스마켓 등의 발행사들이 연이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ECM업계 관계자들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빅딜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로봇 관련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상장 추진에 나선 두산로보틱스나 최근 호실적을 기록 중인 CJ올리브영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최근, 대체로 IPO 추진의 키(Key)를 쥔 재무적투자자(FI)들이 주식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상장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메기'가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요예측 관련 제도 변동에 대한 파악 및 대응에 분주한 분위기다. 하반기에 수요예측이 예정된 발행사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려는 움직임인데, 1000개가 넘는 국내외 기관들의 자금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내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지은 기자

ECM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2,358	5	제넥신	9
2	미래에셋증권	2,235	4	롯데케미칼	8
3	삼성증권	2,144	3	롯데케미칼	-
4	신한투자증권	1,952	2	롯데케미칼	4
5	하나증권	1,843	2	롯데케미칼	-
5	NH투자증권	1,843	2	롯데케미칼	10
6	유안타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
6	KB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1
7	한화투자증권	1,084	2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8	키움증권	469	2	샌즈랩	-

ECM 전체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삼성증권	2,339	3	롯데케미칼	-
2	한국투자증권	2,258	5	제넥신	9
3	신한투자증권	2,146	2	롯데케미칼	3
4	하나증권	2,073	2	롯데케미칼	-
5	KB증권	1,974	1	롯데케미칼	1
5	미래에셋증권	1,947	4	롯데케미칼	8
6	NH투자증권	1,629	2	롯데케미칼	10
7	유안타증권	1,372	1	롯데케미칼	-
8	한화투자증권	984	2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	키움증권	469	2	샌즈랩	-

IPO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506	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	한화투자증권	1,084	2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미래에셋증권	499	3	엘비인베스트먼트	8
4	키움증권	469	2	샌즈랩	-
5	삼성증권	407	2	지아이이노베이션	-
6	대신증권	391	1	삼기이브이	3
7	신한투자증권	216	1	미래반도체	4
8	신영증권	205	1	자람테크놀로지	-

IPO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406	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	한화투자증권	984	2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	미래에셋증권	489	3	엘비인베스트먼트	8
4	키움증권	469	2	샌즈랩	-
5	대신증권	391	1	삼기이브이	1
6	삼성증권	365	2	지아이이노베이션	-
7	신한투자증권	216	1	미래반도체	4
8	신영증권	205	1	자람테크놀로지	-

유상증자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1
1	하나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
1	미래에셋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2
1	NH투자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4
1	신한투자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
1	유안타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
1	삼성증권	1,736	1	롯데케미칼	6
2	한국투자증권	852	1	제넥신	3
3	하이투자증권	449	1	엘브이엠씨	-

유상증자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1,974	1	롯데케미칼	1
1	삼성증권	1,974	1	롯데케미칼	-
2	하나증권	1,945	1	롯데케미칼	-
3	신한투자증권	1,930	1	롯데케미칼	-
4	NH투자증권	1,501	1	롯데케미칼	4
5	미래에셋증권	1,459	1	롯데케미칼	2
6	유안타증권	1,372	1	롯데케미칼	-
7	한국투자증권	852	1	제넥신	3
8	하이투자증권	449	1	엘브이엠씨	-

ELB 주관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유진투자증권	200	1	한국유니온제약	3

ELB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유진투자증권	200	1	한국유니온제약	3

'250억짜리만 되는 시장'…
증시 부침에 증권사 ECM 빅딜 기대 버렸다

IPO, 티이엠씨·제이오 제외하면 400억 이상 규모 없다시피
그나마 한화리츠·미래에셋스팩 컸지만…일반 청약 흥행 실패
증권사 ECM부, 빅딜 가뭄에 사업 전략 '다다익선'으로 수정

"올해는 공모 규모 250억원짜리가 주 먹거리다." _ 증권사 IPO팀장

"대형 증권사들도 이제 전략을 바꿔야 산다. 크든 작든 일단은 딜 건수를 늘려야 한다." _ 대형증권사 IB본부장

"대형 딜에 전사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1분기 패착이었다." _ 대형증권사 ECM본부장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은 평균 250억원 규모의 '중소형 딜'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4개의 기업이 IPO를 통해 상장한 가운데, 공모 규모가 4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스팩과 리츠를 제외하면 티이엠씨 · 제이오 단 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형 딜은 대부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불황을 보이고 있어, 증권사 ECM(주식자본시장)부서들은 IPO 전략을 일제히 '다다익선'으로 수정한 상황이다.

4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ECM산하 IPO담당 부서들은 올해부터 사업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까지는 공모금액 500억원 이상의 대형 딜에 중점을 두고 시장 점유율을 높였지만, 이제부터 중소형 딜을 대거 주관해 부서당 최소 15개 이상의 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다익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은 ECM 3개부서의 IPO담당 인력을 약 50명까지 확충했다. 인원을 늘려 중소형 딜에 분산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IPO 명가'로 손꼽히는 증권사들도 중소기업들의 상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빅딜과 중소형 딜을 합쳐 최소 15개 정도는 끌고 가야 증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며 "예전처럼 (주관수수료) 50억원, 100억원짜리 딜 몇 개만 하면 시장점유율 1,2위를 넉넉히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대어급의 실종은 발행사 및 FI(재무적투자자)와 증시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모가가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원하는 밸류(기업가치)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아예 IPO를 철회하고 대출 등의 차선책을 통해 연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자금 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들만 IPO 시장에 남아 밸류를 낮춰서라도 상장하는 형국이다.

2023년 1분기 IPO 상장기업

(단위 : 백만원)

날짜	기업명	청약 경쟁률	공모규모
01월 19일	티이엠씨	0.81:1	61,600
01월 19일	한주라이트메탈	565.18:1	20,150
01월 27일	미래반도체	938.26:1	21,600
01월 30일	오브젠	5.97:1	13,967
02월 03일	삼기이브이	117.63:1	39,072
02월 07일	스튜디오미르	1592.89:1	19,500
02월 09일	꿈비	1772.59:1	10,000
02월 15일	샌즈랩	868.07:1	38,850
02월 16일	제이오	142.47:1	52,000
02월 20일	이노진	1643.88:1	7,800
02월 24일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253.85:1	9,300
02월 28일	유안타스팩13호	16.36:1	17,000
03월 02일	바이오인프라	1034.74:1	13,650
03월 02일	삼성스팩8호	170.79:1	40,000
03월 03일	나노팀	1637.43:1	26,650
03월 07일	하나스팩26호	75.97:1	11,000
03월 07일	자람테크놀로지	1030.65:1	20,460
03월 09일	NH스팩28호	374.56:1	6,800
03월 13일	금양그린파워	1312.1:1	30,073
03월 15일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0.45:1	70,000
03월 17일	유안타스팩12호	1.53:1	9,000
03월 27일	한화리츠	0.53:1	116,000
03월 29일	엘비인베스트먼트	1165.75:1	23,552
03월 30일	지아이이노베이션	262.2:1	26,000

출처 38커뮤니케이션

한 증권사 본부장은 "작년부터 추진한 빅딜들이 발행사 내부 문제로 어긋난 경우가 정말 많았다. 헛힘 썼다는 생각에 허탈할 뿐"이라며 "빅딜 위주로만 추진하다 중소형 딜을 많이 못 챙겼기 때문에 지금 공백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지난해 총 공모 규모 12조7500억원이라는 역대급 딜을 수임한 KB증권 · 신한투자증권 · 대신증권 등이 리그테이블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1조원이 넘는 대어가 전무해, 공모 규모 1160억원의 한화리츠가 업계 최고 빅딜로 취급됐다.

실제로 한화리츠를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나란히 1분기 ECM 리그테이블 순위권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도 자사 미래에셋드림스팩1호와 엘비인베스트먼트(LB인베) 주관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겨우 성사된 빅딜마저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한화리츠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7.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방했지만, 일반 대상 청약에서 0.53대 1로 수요가 미달됐다.

공모 규모 700억원의 미래에셋드림스팩1호도 기관 경쟁률 63.1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 0.45대 1로 찜찜한 결과를 거뒀다. '1호 상장' 기업인 티이엠씨(616억원)도 희망밴드 하단보다 가격을 낮췄지만 일반 공모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며 부진한 성적을 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긴축 등으로 투심이 얼어붙다가 좀 나아지나 했더니 SVB(실리콘밸리은행)와 CS(크레디트스위스은행) 이슈가 또 터졌다"며 "기관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빠져나갈 시기가 다가오면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중소형 딜의 온기마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설희 기자

2023년 더 실속있게
(무) 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이
함께 뛰어줄 타이밍

인생이라는 힘든 경기를 뛰고 있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 실속 있는 보탬이 되도록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은 더 든든하게
유연한 자금 활용 기능은 물론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당신의 인생
더 든든하게 어시스트 하겠습니다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교보헬스케어서비스는 주계약 7천만원 이상 가입시 보험유지간에 한하여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주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제공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제휴회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212-117 상품지원팀(2022.12.28~2023.12.27)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0064호(2023.1.3~2024.1.2)

KYOBO 교보생명

수요예측 대박은 선착순…
타이밍이 중요했던 1분기 DCM

연초효과 확인되며 수요예측마다 뭉칫돈…발행물량 급증
실적 우려 짙은 유통사·석유화학사도 수혜…A급까지 온기
자금조달 수요 큰 롯데그룹 잇따라 발길…'깐부' KB證 선두
3월 이후 우호적 여건 '끝' 관측…갈팡질팡하던 기업들 '실기'

연초 효과로 회사채 시장에 불었던 훈풍은 짧았다. 금리인상·SVB사태로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식자 채권 발행을 고민하던 기업들은 적절한 발행 시점을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23년 1분기 채권자본시장(DC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무보증 공모회사채(일괄신고 제외)는 23조6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금리 변동성이 줄고 기관투자자가 자금 집행을 재개하면서 벌써 작년(54조원) 절반 규모에 이르는 채권이 발행됐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량채도 미매각이 발생했던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새해 수요예측에는 조 단위 뭉칫돈이 몰렸다. KT·이마트 수요예측에선 각각 2조8850억원, 1조1750억원의 주문이 밀려들었다. 다음날 진행된 포스코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선 4조원에 육박하는 주문이 몰리면서 전날 KT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연초를 맞아 주요 공제회 및 연기금 등이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담으면서 역대급 유동성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마트의 흥행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냉가슴을 앓던 유통업계에 자금조달 청신호를 켜줬다. 롯데하이마트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임에도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오버부킹에 성공했다. 신세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보다 17배 많은 인수 주문을 받았다. 유통업계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실적은 낮아지고 빚은 늘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상외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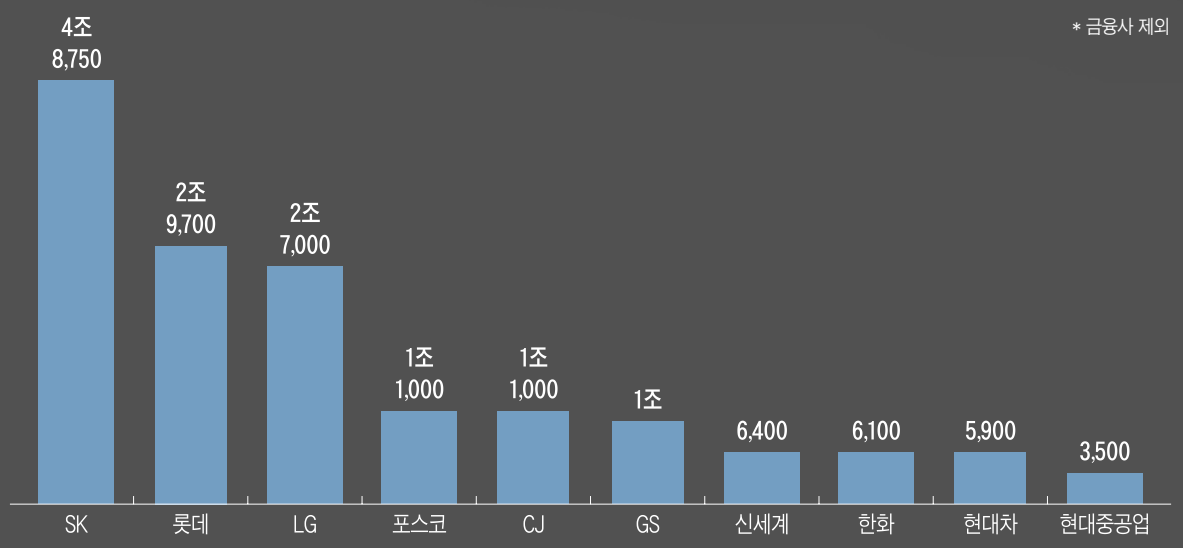
연초 회사채 강세를 틈타 '현금을 쌓아야 하는' 석유화학업계도 채권시장을 찾았다. 수요 부진·공급 과잉·유가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룹사로부터 지원 여력이 있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수요예측에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집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일찍이 채권시장 문을 두드린 효성화학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다.

자금수혈이 급한 SK그룹과 롯데그룹은 공격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SK그룹은 2월 중순까지 3조3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SK하이닉스는 혼자 1조4000억원의 자금을 빨아들이며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했다. SK그룹의 1분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벌써 작년 발행 실적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우발채무 우려가 큰 롯데건설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등 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회사채 시장에 출동했다. M&A(인수·합병) 자금 수요는 물론 업황 부진에 대비해야 하는 롯데케미칼은 5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계열사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가 각각 3500억원, 3000억원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기업집단별 회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 금융사 제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사 간 주관 및 인수 경쟁이 심화하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물밑 움직임도 이어졌다. KT는 3년물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시장의 눈총을 샀다. NH투자증권은 GS건설 회사채 발행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유효 수요를 배제하면서 업계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회사채 시장이 원래 발행사 우위 지형이라고는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결국 대기업 그룹사의 조달 파트너가 되어야만 한 해의 장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KB증권은 SK·LG그룹 등 대기업 딜을 두루두루 수임했지만 '깐부'로 알려진 롯데그룹 회사채 인수에 가장 많은 이름을 올리며 전체 인수 부문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NH투자증권은 과거 LG그룹이었던 인연에 힘입어 LG그룹의 인수 물량을 가장 많이 따내며 2위 자리에 올랐다.

이같은 회사채 시장 초강세는 2월 중순 이후 다시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시장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관들 사이에선 연초와 같은 우호적인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동산 우려로 투자심리가 비우호적인 건설사들은 사모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태영건설, KCC건설, 신세계건설이 각각 300억원, 200억원, 200억원을 3년물로 사모 조달했다. 이에 회사채 발행 시기를 저울질하다 기관들의 매수세를 놓친 기업들은 자금 수혈 시기를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일찍이 지난 1월 공모 회사채 시장을 찾으며 저금리 발행에 성공한 바 있다.

연초 초강세로 올해는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증권사들 사이에선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금리 변동성이 재차 커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 우려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분기 발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투자가도 당분간 매수세를 줄이고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VB사태로 A급까지 퍼지던 온기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PF 관련 경계감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확산할 지가 관건이다"라며 "금리 수준이 운용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매수세가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수·이상은 기자

수요예측 대박은 선착순…타이밍이 중요했던 1분기 DCM

DCM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47,414	97	SK렌터카 55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1
2	NH투자증권	41,708	77	SK하이닉스 224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2
3	한국투자증권	30,310	68	SK하이닉스 224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3
4	SK증권	27,153	37	SK하이닉스 224 티월드제팔십이차	4
5	신한투자증권	25,748	56	CJ대한통운 100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5
6	미래에셋증권	17,645	42	SK 306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10
7	삼성증권	14,601	39	포스코 313 신보2023제2차	6
8	키움증권	10,241	28	SK매직 11 신보2023제2차	8
9	교보증권	5,498	6	국민은행 230227 신보2023제2차	9
10	한화투자증권	3,100	3	KB금융지주 12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36	-

일반회사채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37,854	84	SK렌터카 55 LG화학 56	1
2	NH투자증권	33,518	68	SK하이닉스 224 LG화학 56	2
3	한국투자증권	28,445	62	SK하이닉스 224 LG화학 56	3
4	신한투자증권	20,111	48	CJ대한통운 100 SK지오센트릭 20	5
5	SK증권	19,247	29	SK하이닉스 224 SK에너지 50	4
6	미래에셋증권	16,320	40	SK 306 LG화학 56	10
7	삼성증권	13,127	33	포스코 313 롯데케미칼 60	6
8	키움증권	7,968	23	SK매직 11 롯데케미칼 60	7
9	하나증권	1,530	4	통영에코파워 4 롯데리츠 5	-
10	하이투자증권	1,500	5	LG전자 100	-

ABS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4,511	6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티월드제팔십이차	2
2	신한투자증권	3,287	4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티월드제팔십이차	3
3	SK증권	2,607	2	티월드제팔십이차 티월드제팔십삼차	4
4	한국투자증권	1,066	5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신보2023제2차	1
5	한국산업은행	1,000	1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9
6	NH투자증권	890	2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7
7	IBK투자증권	815	5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신보2023제2차	5
8	현대차증권	748	5	신보2023제2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
9	삼성증권	649	5	신보2023제2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
10	미래에셋증권	500	1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

DCM 전체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36,941	110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LG화학 56	1
2	NH투자증권	31,657	88	SK하이닉스 224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4
3	SK증권	29,745	55	SK하이닉스 224 티월드제팔십이차	3
4	신한투자증권	26,650	74	LG화학 56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5
5	한국투자증권	25,702	84	SK하이닉스 224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2
6	미래에셋증권	18,010	55	SK 306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
7	삼성증권	13,559	52	포스코 313 신보2023제2차	6
8	키움증권	10,679	47	CJ대한통운 100 신보2023제2차	7
9	하나증권	5,455	29	통영에코파워 4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10
10	하이투자증권	5,210	23	LG전자 100 신보2023제2차	9

일반회사채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28,107	95	LG화학 56 SK E&S 18	1
2	NH투자증권	27,317	79	SK하이닉스 224 LG전자 100	2
3	한국투자증권	22,886	73	SK하이닉스 224 LG전자 100	4
4	SK증권	21,135	45	SK하이닉스 224 SK에너지 50	3
5	신한투자증권	20,640	65	LG화학 56 SK지오센트릭 20	5
6	미래에셋증권	16,710	53	SK 306 LG화학 56	8
7	삼성증권	12,210	46	포스코 313 CJ제일제당 30	6
8	키움증권	9,480	42	CJ대한통운 100 롯데케미칼 60	7
9	하나증권	4,055	24	통영에코파워 4 롯데리츠 5	-
10	한국산업은행	3,500	6	롯데건설 142 GS건설 1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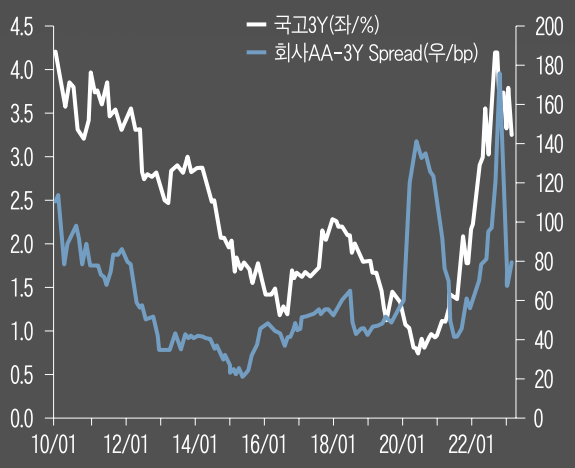
ABS 인수

순위	인수사	금액 (억원)	건수	주요 거래	전년 순위
1	KB증권	4,134	6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티월드제팔십이차	4
2	SK증권	3,360	2	티월드제팔십이차 티월드제팔십삼차	2
3	신한투자증권	2,910	4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티월드제팔십이차	3
4	한국투자증권	1,066	5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신보2023제2차	1
5	한국산업은행	1,000	1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8
6	NH투자증권	890	2	유플러스파이브지제육십칠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9
7	IBK투자증권	815	5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칠차 신보2023제2차	5
8	현대차증권	748	5	신보2023제2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
9	삼성증권	649	5	신보2023제2차 퍼스트파이브지제육십육차	-
10	우리종합금융	443	4	신보2023제2차 신보2023제4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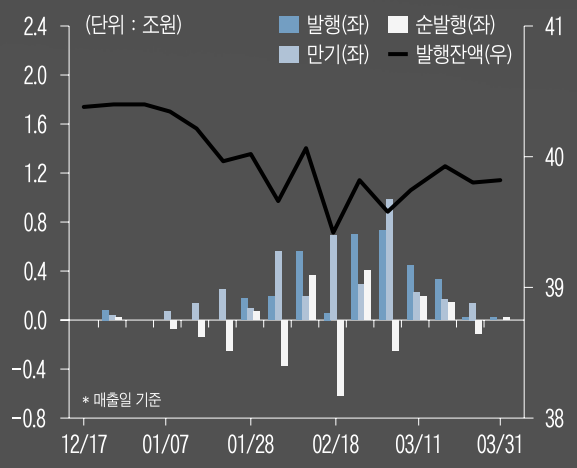
부동산PF·코코본드 뇌관은 여전…
경기침체 속 여진 지속되는 DCM

4월은 채권시장 투자자 관망세 전망
SVB·CS사태로 채권시장 위축되고 있고
금리인상 예상되며 크레딧 리스크 재점화
매크로 변하지 않는 한 부동산PF 안심 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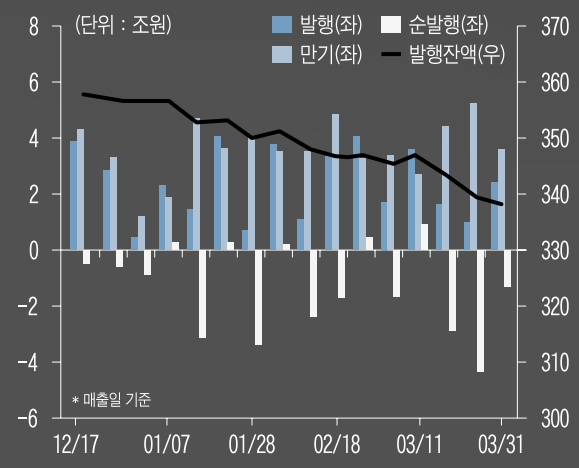
국고 금리 및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출처 하나증권

2분기 채권시장은 1·2월과 같은 초강세를 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채권시장은 다시 위축됐다. 작년에 이어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PF 등의 변수가 여전히 채권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한솔제지는 7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136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물량 모집에 성공했다. 한솔제지의 2년물 금리는 개별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 금리)보다 35bp(1bp=0.01%포인트), 3년물은 22bp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개별 민평금리가 등급 민평금리보다 높은데도 오버 발행해야 했단 관측이다. SVB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이 국내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월 중순 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채 시장은 투자자와 발행사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작년말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정점을 찍으면서 채권 발행이 거의 전무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AA-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170bp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고 올해 연초에 스프레드가 줄면서 투자자나 발행사 모두 금리 수준에 만족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순발행이 상당했고 일반 기업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최근 AA-급 이상 우량채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긴 했지만 추가로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만기 2~3년 이하 단기물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응찰하려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 대신 5~7년 중장기물에 대해선 앞으로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회사채 투자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다. 최소한 4월 크레딧 유통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은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가 등 매크로 변수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2분기 조달 환경을 당장 가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한 증권사 커버리지 관계자는 "1~2월에 워낙 좋았던 만큼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발행사 입장에선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는데, 현재는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4월 크레딧 발행이나 유통시장 분위기를 보고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 아래 '뇌관'들도 제거되지 않아 위험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SVB, CS사태로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PF 관련 긴장감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이 국내 부동산 경기 연착륙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지난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내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경험이 있어 국내 시장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가 큰 금융사를 향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동산PF 대출을 연장해줄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전이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캐피탈사, 카드사의 경우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벌어졌다.

다른 채권시장 관계자는 "부동산PF 부실 상황은 올해 내내 주시해야 될 지표 중 하나다. 금리, 유동성 등이 부동산 시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CS의 AT1 상각으로 은행권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투자 자산으로 안정성이 높았던 신종자본증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할 것이라며 조기 진압에 나섰고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증권사 커버리지 관계자는 "금융사 중 신용등급이 여유롭지 않은 곳들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스프레드를 올려야 할 수 있다. 투자자 모집이 과거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금감원이 코코본드의 수급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관 증권사들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절대금리가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달 수요가 떨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 기업들이 발행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증권사 DCM 관계자는 "과거 오랜 기간에 비해서 절대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행사는 중장기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여전히 발행을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2분기에도 발행량이 꽤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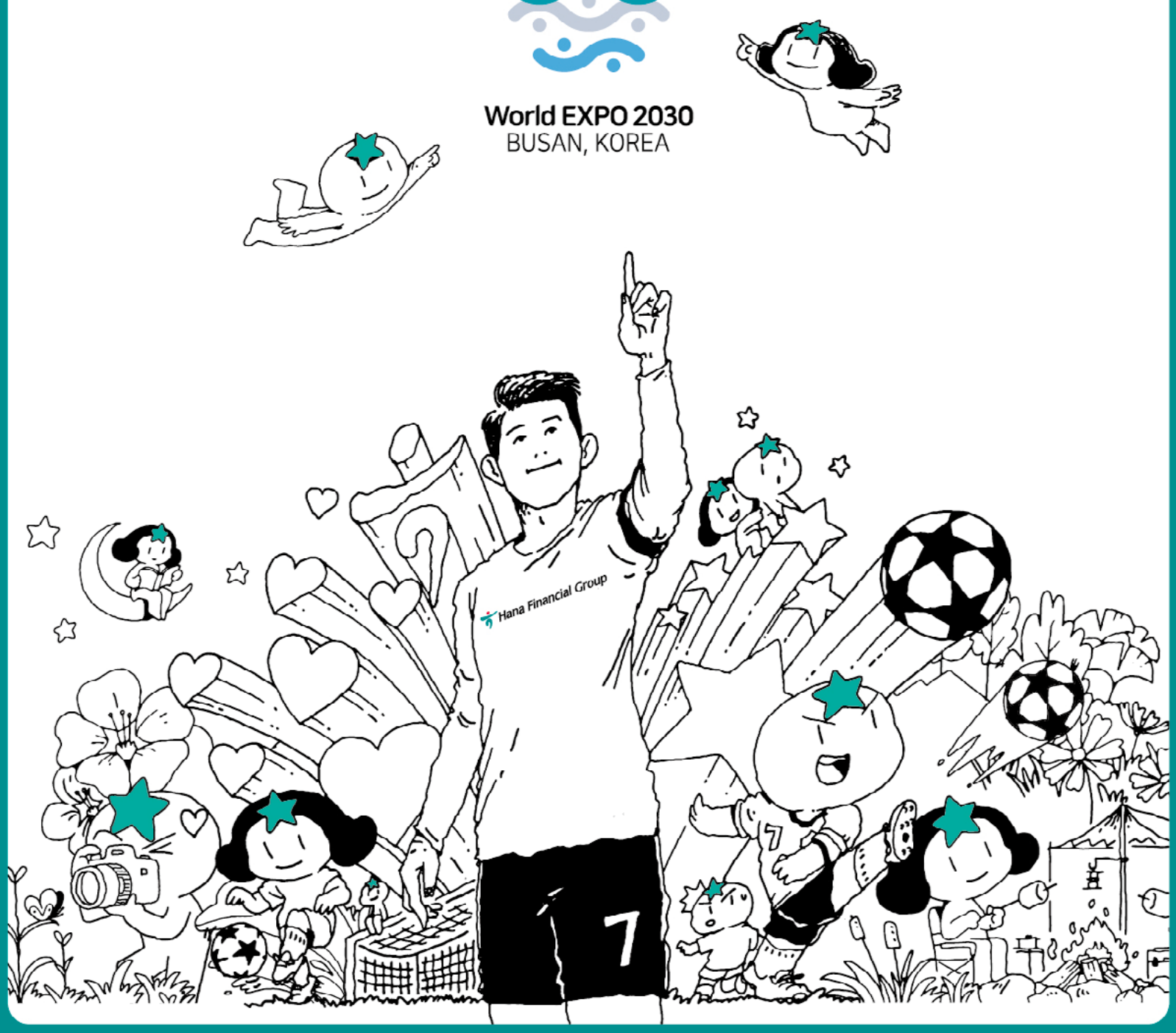
임지수·이상은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Hana Financial Group supports Busan's Bid to host the World EXPO 20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